



인권과 평화로 빛어진 문화예술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글·사진 정현석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사내기자

1

광주의 역사가 관통하는 길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가 지닌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 아래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됐다. 광주의 역사와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하면서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으로 가는 길에는 구 도청 앞 충장로1가, 광주 민주항쟁의 중심지인 구 도청과 전일빌딩, 종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5·18민주광장이 있고, 광장 근처 길목에는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이 형성돼 있다. 회화나무는 오랜 시간 광주를 지키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나무이자,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행복을 부르는 기운이 있어 과거의 유림숲과 같이 광주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가는 길부터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4



2

NOVEMBER 2023 VOL.427

문화를 창조하는 5개의 예술공간

광주의 역사를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구로 들어가면 '민주평화교류원'이 바로 보인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건물인 옛 전남도청 일원을 복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민주, 인권, 평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가치를 전파하는 것은 이 공간의 또 다른 역할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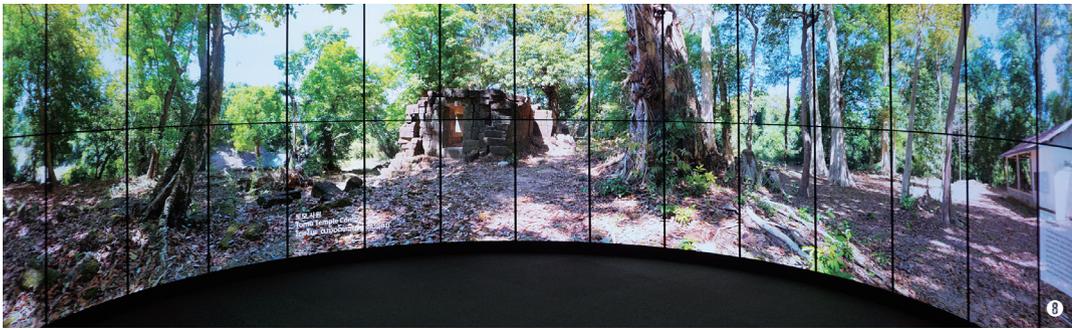
'문화정보원'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지나 아시아 문화광장을 가로지르면 등장한다.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보존해 전시와 체험 등을 방문객에게 제공한다.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술교류와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정보원을 지나면 '문화창조원'으로 이어진다. 인문, 예술, 첨단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연구실 기반의 창작 공간으로, 그 상상력이 실현되는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인들

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세계의 역사와 문화 연구도 수행한다.

문화창조원을 나와 우측으로 돌면 '예술극장'과 만난다. 진취적인 작품의 기획과 제작, 담론의 생산 그리고 순환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허브로,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특히, 그 안에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아시아의 이야기를 담아 차별화된 공연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의 감성과 창의성,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체험과 놀이를 제공한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는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성장시킨다. 한편, 이 5개의 공간 가운데 자리 잡은 '아시아문화광장'은 낮이면 안개 분수를, 밤에는 LED 화면에 형형색색 빛을 뿜는 등 근사한 광경을 만들어낸다. 약간의 경사는 무대가 돼 크고 작은 문화공연의 장이 되기도 한다.



현재와 맞닿은 광주의 정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중심지라는 지역의 배경을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아시아 국가 간의 소통과 연대, 개발과 수용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그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차가운 계절을 맞는 요즈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가득 품은 이곳에서라면 어제보다 깊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_광장
- ②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사잇길_춤추는 분수대
- ③ 문화정보원_도서관
- ④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책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 ⑤ 아시아 이야기_마나스의 길
- ⑥ 김창열_회귀(한글과 물방울의 만남)
- ⑦ 이창운_도시와 도시를 잇는길
- ⑧ 아시아 문화 가상여행_토모사원